

성소 인식하기: 변혁을 일으키는 부르심

성십자가 관구, 파소 폰도, 브라질



모든 젊은이들의 마음은 삶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는 갈망으로 울립니다. 이러한 열망과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파소 폰도의 거룩한 십자가 관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네 번의 주말에 걸쳐 네 차례의 성소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임들은 대화와 묵상,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함께하는 경축의 순간들에 대한 숙고를 키워줍니다. 모임은 파소 폰도의 양성소와 아크레 주 크루제이루 도 술 시에서 진행되며, 젊은 여성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참가자들의 성소 식별 과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만남들은 단순한 활동의 연속이 아니라, 인간적 차원, 그리스도론적 차원, 교회적 차원이라는 세 가지 본질적 차원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각 만남은 참가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되돌아보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인식하며, 일상의 순간들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도록 초대합니다. “삶의 의미와 우리의 소명, 그리고 세상에서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라는 문구가 티셔츠에 새겨져 참가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티셔츠를 입는 것 – 문자 그대로 “명분을 걸치는 것”은 단순한 복장이 아니라, 양성과 영적 성장을 향한 개인적 투신의 상징이 됩니다.

심리학, 영성, 사목 분야에 헌신하는 성소 봉사자들과 수녀들은 활동과 기도, 나눔의 시간, 그리고 감동적인 체험담을 통해 참가자들을 이끌어 갑니다. 주방의 단순한 일상 리듬이나 세션 사이의 유쾌한 휴식조차 자매적 연결의 순간이 되며, 그 안에서 모든 세부 사항이 돌봄의 따뜻함과 봉사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을 전해줍니다.

참가자들은 청년 그룹, 건진 준비 프로그램, 본당 공동체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갈망과 자신의 여정을 나눌 용기입니다. 그것이 개인적 성숙이든, 신앙의 심화이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삶에 대한 더 큰 참여이든 1년의 여정을 통한 그들의 성장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2025년 마지막 모임은 11월 22~2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통합과 감사, 파견의 순간이 될 것이며, 이는 한 해의 풍요로운 여정을 축하하는 동시에 2026년에 이어질 새로운 활동들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소 인식하기는 하나의 행사 외의 훨씬 큰 의미를 지닙니다. 종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감명을 받으며, 우리가 자유롭고 기쁨에 찬 마음으로 그분의 변화시키는 부르심에 응답할 때 삶이 가장 깊은 의미를 드러낸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살아있는 초대입니다.